

조난 구조용 지능드론 제안 '장관상'

전북대,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 드론 챌린지 대상 영예... 자동 이륙, 장애물 회피 기능 탑재된 구조용 드론 제안

전북대 자율지능이모빌리티센터(이하 CAIM·센터장 이덕진)는 최근 열린 'DNA+드론 챌린지 2021' 대회 자유 공모(자율비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전했다. CAIM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이 이륙해 장애물을 회피하고, 조난자 탐색 후 복귀 지점까지 수행하는 임무를 완전자율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이 대회는 드론에 AI와 데이터 증강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드론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KRAUV) 주관으로 열렸다.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에서 참여해 지정 공모(데이터 챌린지-총상금 1800만 원)와 자유 공모(자율비행 챌린지-총상금 1500만 원), 아이



디어 공모(비즈니스모델, 총상금 800만 원) 등 3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전북대 CAIM은 이번 대회에서 도우키 울리드(박사 후 연구원), 무한 마드 이마드(박사 과정), 유윤하(석사 과정), 김도영(학사 과정) 4명이 팀으로 출전, 지능형 충돌 회피 및 비행제어, 탐색·임무계획, 인공지능

기반 영상처리·임베디드 컴퓨팅 등이 탑재된 조난 구조용 드론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자율비행드론을 제작해 비행검증을 통해 위험하고 기체 성능을 저하시키는 복잡한 환경에서의 구조 활동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기자

전주교대 총장 1순위 후보 선출

박병춘 교수, 총장선거서 1차 투표 과반 득표

전주교육대 제8대 총장선거에서 박병춘 교수(윤리교육과)가 총장 1위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인 온라인투표로 진행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일 전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주최로 치른 제8대 총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총장 1위 후보에 올랐다. 한편 전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득표를 1위인 박병춘 교수와 2위인 유정수 교수를 새로운 총장 후보로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새 총장 임기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4년이다. /장은성기자



"윤석열은 당장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

차상철 대표, 대선후보직 사퇴 주장·청소년 역사교육 바로 세우야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두환씨 발언과 관련해 "5·18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모든 국민들이 피의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를 뿌리째 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도민들에게 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후보는 즉각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은성기자



이러 그는 "윤 후보의 전박한 역사 인식은 사라지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를 찾은 윤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했다. 차상철 대표는 "전두환씨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뒤 5·18을 통해 호남인들을 학살한 반민주적이고 반사대적인 인물이다"면서 "윤 후보는 호남인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28-29일 전주비전대 졸업작품전

전주비전대학교는 28~29일 양일 간 대학 내 문화체육관에서 신학협력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박람회인 '비전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차세대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원의 졸업작품전'을 테마로, 내년 2월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학술발표회, 학과별 성과 전시, 태권도 공연, 뷰티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비전 엑스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학 기간에 배우고 익힌 전공기술, 산업 현장의 실무기술을 결합한 작품을 개발·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총 140여 개 작품이 전시, 우수작품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특허청장상, 새만금개발청장상 등 30여 개 주요 기관장상을 수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자동차로봇학과 김인준 외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타이머 내장형 차량 신호등'이다. 최승훈 단장은 "졸업작품 전시를 취업난 속에서도 학생들이 대거입을 비롯한 우수 기업에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며, "실무형 기술인재들이 사회에 찾발을 내밀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이리공업고등학교가 교내에 지게차 운전실습실을 마련, 21일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게차 운전실습실 마련

이리공고서 완공식 개최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욱)가 교내에 지게차 운전실습실을 마련, 21일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테니스 연습장 부지에 들어선 지게차 운전실습실은 총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지게차 운전실습실은 특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게차 운전자격증'을 취득하

업라인 등을 설치 기부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청에서도 아간에 사용 가능한 조명시설을 지원,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학교 혁신지원사업으로 시설보수 및 운영을 확정하는 등 학생들이 완벽하게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지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VR을 활용한 가상 운전연습기 설치 등 4차산업시대에 더욱 발전적인 시설 지원도 약속했다. 김기욱 교장은 "앞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전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학교는 취업 등 개인의 진로에 맞는 취업전문 특성화고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는데 꼭 필요한 실습실로, 학교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설치부지 및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게차 운전실습실 마련은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실로 더욱 의미가 있다. 기존 테니스장 시설을 사용해 온 테니스 단체에서 학생들의 자격취득 및 취업자원을 위해 꼭 필요함을 알고 흔쾌히 사용권을 양보해 준 것이다. 또 이리공업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의 취업자원을 위해 지게차 1대 구입과 운전 연습장의 바닥공사 및 시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산 후조리원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 21일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범용 병원장과 고연석 진료부장, 류정현 총무팀장, 이철성 안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변만용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

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소방본부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12개 업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의 과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60주년 60th Anniversary 축하! 전주매일 창간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농업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농협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농업, 농촌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H 농협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조인갑**
 부안농협 조합장 **김원철**
 남부안농협 조합장 **최우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 **신순식**
 변산농협 조합장 **신왕철**

계화농협 조합장 **이석훈**
 하서농협 조합장 **김병호**